



6 Focus
자랑스러운 동국인
성우 김종성 동문
 “46년 성우생활, 원동력은 동국”
 김종성 동문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 들어본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불음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침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순다니파타 소품 398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9호 2010년 (불기 2554년) 3월 8일 월요일

Cover Story 음주 일색 신입생 환영문화

‘술’만 있는 개강문화 도대체 언제까지

한동대, 4박 5일 산행OT로 음주 문화 혁신 참고할 만

“신입생 여러분 개강 총회 끝나고 뒷풀이가 있으니 꼭 참석해주세요”
 개강총회가 한창이었던 지난주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과 별로 모인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말이다. 개강총회 뒷풀이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마련된 술자리다. 개강총회 뒷풀이로 인해 동대입구역과 충무로역 주변 술집들은 개강 초마다 늘 만원이다.

도가 지나친 개강 초 술 문화

현재 대학 개강문화는 술 문화로 대변된다. 술 없이는 만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방법이 없다는 식이다. 선배들에게 술 문화를 배운 재학생들은 그들의 선배와 같은 문화를 답습(踏襲)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술로 획일화(劃一化)된 개강문화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과 구토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대학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나친 술자리로 인해 매년 대학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동민(회계2)군은 신입생 당시의 상황을 “지나친 술자리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고, 강의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높은 음주율은 건강상의 이상, 학업능력의 저하, 성폭행, 사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招來)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5월에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남자의 경우 소주 1병, 여학생은 소주 5잔 이상씩 마시는 비율이 51.5%로 일반 성인 33.0%에 비해 18.5%나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음주문화가 점차 과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확실적인 대학문화가 원인

도대체 왜 바람직하지 못한 술 문화가 대학 전반에 퍼진 것일까? 술 문화 외에는 다른 문화적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술 문화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현재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신입생 환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학생들의 노력과 신입생들의 요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술 문화로 획일화된 대학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학문화 자체가 대중문화와 다르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대학생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창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대학생들만의 문화가 확고했던 세대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김진용(경제65졸) 동문은 “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간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그 도가 지나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동문은 “선배나 동기들은 강의나 토론을 통한 교제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송용섭(정치외교90졸) 동문도 “학생운동 당시에도 술 문화는 있었지만 현재 대학생들처럼 도가 지나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송 동문은 “주로 책을 주제로 토론하거나 시사에 대한 토론, 그리고 적극적인 학회참여로 다양



한 대학문화를 즐겼다”며 술문화로 대변되는 현재 대학생들의 문화를 안타까워했다.

다양한 개강문화 조성 노력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작은 변화를 이루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한동대의 경우, 건학 이념을 살려 술 문화를 지양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한동대 총학생회장 심규진 군은 “개강총회 뒷풀이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대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4박 5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녀온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선과 혜영부부의 특강과 아이티 후원, 천로역정(天路歷程)이라 불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이티 후원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 전원이 한 끼 식사를 굶어 그 비용으로 후원했다. 천로역정은 한동대만의 전통으로 선배들이 험난한 산행 코스를 극복한

후배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행사다. 술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아주대 중앙동아리 사회봉사단의 경우, 작년 3월 학교 앞 식당에서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채 개강 총회를 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14일 아동복지시설인 야곱의 집(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으로 봉사활동을 가 어린이들을 돌봤다. 올해도 오는 11일 신입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갈 예정이다. 이서정 아주대 사회봉사센터 담당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 만큼 술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 문화로 획일화 되어버린 신입생 환영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출신들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강문화가 꽃피워야 할 때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정진하는 사람

마성 스펀
 팔리문헌연구소장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의 ‘쾌속세대’들이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TV를 통해 한국 선수들의 경기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좌절하며 눈물을 삼켰을까?’를 생각했다. 이들의 승리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침내 자신에게는 영광을, 국민들에게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한 개인의 노력은 개인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붓다 당시 ‘소나’라는 비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요살라국의 수도 사왓티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식을 스무 명이나 낳았다. 그래서 그녀는 ‘바후뽀따까’로 불렸다. ‘많은 아들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아무도 그녀의 노후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녀는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승단에 몸을 의탁했다. 출가 후 그녀는 늙어서 출가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섭게 정진했다. 그녀의 소식은 부처님께도 전해졌다. 어느 때 부처님은 비구니 가운데 정진 제일(精進第一)은 소나 비구니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얼마 후 곧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소나 비구니의 정진은 승단의 모델이 되었다.

얼마 전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것인가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다. 그러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영어를 단 시일 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적이 있다. 나는 그런 광고를 전혀 믿지 않는다. 내 경험상 외국어를 단 시일에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문든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조금씩 실력이 향상될 뿐이다. 그런데 간혹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진(精進)’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 팔리어 ‘위리아’, ‘와야마’, ‘빠다나’ 등은 모두 정진을 뜻하는 말이다. 불교의 수행론에서 정진은 그 중심축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도 “계으름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이다. 정진은 결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조금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교정에는 봄기운이 가득하고 벌써부터 꽃망울이 터질 것 같다. 다 같이 정진합시다.

수습기자 모집으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90호는 오는 4월 5일자에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금주의 동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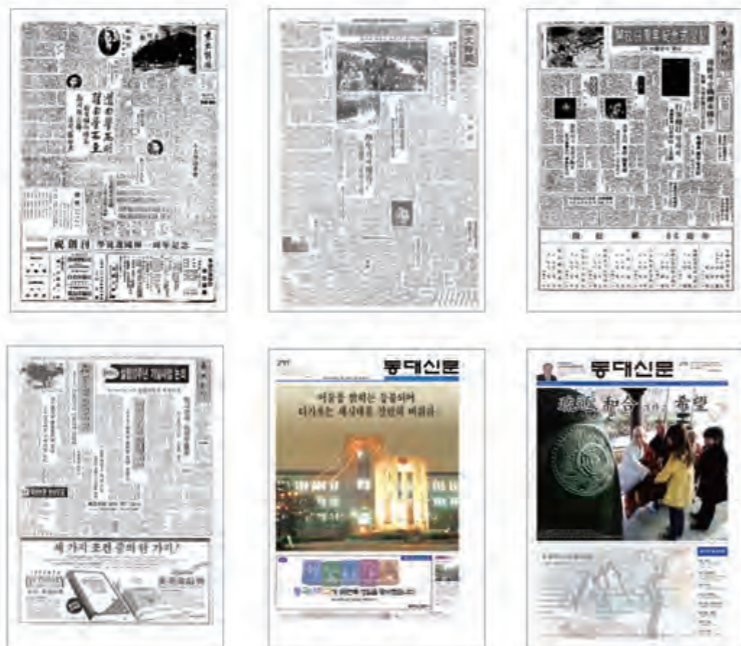
2 금광명최승왕경 보물지정 예고

4 2010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학 안내책자

9 자랑스러운 동국인 - 성우 김종성 동문

12 동대병원 의료단 아이티 봉사기

동대신문의 정기구독 방법이 변경됩니다.



- 2010년부터 동대신문 정기구독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올해부터 동대신문의 우편 정기구독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1만여 동문과 사회단체, 공공기관, 고교 등에 신문을 무료로 우편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물류비용과 인터넷 신문과 웹진 발송으로 우편발송 정기구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자발적 구독료 납부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1만원입니다.

-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 발전과 교우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거짓없는 진실된 보도와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기자들이 건강한 언론인으로 자라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 정기구독료 : 1만원

※ 입금하실 곳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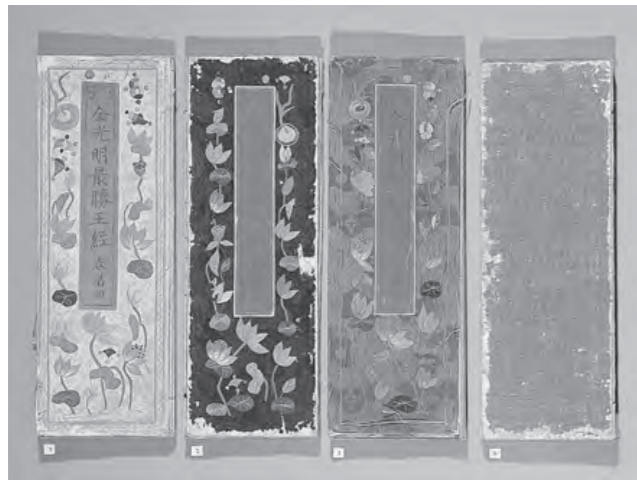
※ 입금하신 후 전화(02-2260-3495)나 이메일(dgupress@dongguk.edu)을 통해 구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학번,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정확한 우편발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 구독료를 납부해주신 배충남 1966 님, 유영련 님, 이1985 행정 님, 조중근 님께서는 현재 입금자와 구독자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화(02-2260-3495)로 연락주셔서 구독자정보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금광명최승왕경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 “학계 내 귀중한 자료로 평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광명최승왕경은 본래 경기도 안성군 칠장사에서 전래된 사경으로, 칠장사 주지스님이 1965년 4월 12일 우리대학에 기증(寄贈)했다.

금광명최승왕경은 조선시대 선조비인 인목대비가 천계(天啓)2년(1622)인 광해군 14년에 당나라 의정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을 필사(筆寫)한 사경으로, 복위 이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명복을 받기 위해 백지에 먹으로 불경을 필사한 사경이다. 인목대비는 필사 후 이를 원당(願堂)인 칠장사에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경은 조선시대 선조비인 인목대비가 천계(天啓)2년(1622)인 광해군 14년에 당나라 의정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을 필사(筆寫)한 사경으로, 복위 이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명복을 받기 위해 백지에 먹으로 불경을 필사한 사경이다. 인목대비는 필사 후 이를 원당(願堂)인 칠장사에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경의 체제(體制)는 매권 사경지 1장을 4면으로 접어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의 총 길이는 1200cm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우리대학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보물(寶物)지정 예고를 받아 이목(耳目)을 끌고 있다.

박물관 이광배 전인연구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금광명최승왕경(1622년)’ 9책을 보물지정 예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광명최승왕경은 34.6×12.0(세로×가로) 크기의 절첩본으로 총 9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광명최승왕경은 본래 경기도 안성군 칠장사에서 전래된 사경으로, 칠장사 주지스님이 1965년 4월 12일 우리대학에 기증(寄贈)했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싱그러운 수다 개강을 맞은 우리대학 여학생들이 팔정도 나무그늘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회전무대

슬픈 짝사랑

○...국제교류팀이 프랑스 대학들로부터 수많은 리브콜을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프랑스의 대학들 중 우리대학의 예술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이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영어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수들이 드물 뿐 아니라, 영어강의에 대한 관심조차 저조하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예술을 손짓 발짓으로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슬픈 짝사랑이군”

호접지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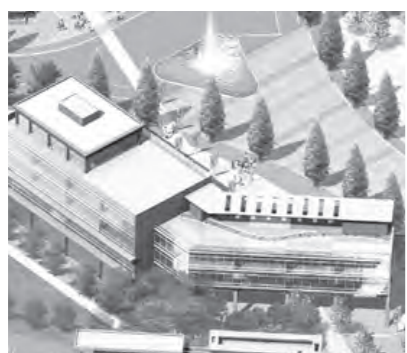
○...계임중독 부모 때문에 3개월 된 아기 배앓다 숨었다고 해 무슨 말이고 하니 자신이 낳은 아기를 혼자 둔 채 매일같이 피사방에서 ‘사이버 아기 키우기’ 게임을 하며 가장아기 돌보기에 몰두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현실의 아기가 진짜 내 아인지 가상의 아기가 진짜 내 아인지 이진 뒤 “현대판 호접지몽?”

21세기형 심봉사

○...21세기형 심봉사가 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시력 장애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았던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눈이 번쩍 띄며 면허를 획득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옛날 심봉사는 부처님께 공양미를 바치고 눈을 떴으니, 21세기형 심봉사는 병무청에 공양미를 바쳤겠구먼?”

약대, 2012년 정원 10명 추가될 듯

교과부, 지난 3일 정원 30명 운영계획서 제출 요구



▲2011년 완성될 약학관 조감도

지난 26일 우리대학이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選定)돼 20명의 정원을 배정(配定)받은 데 이어, 추가적으로 10명을 더 받게 될 전망(展望)이다.

전략기획본부 유광호 팀장에 따르면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기존에 제출한 약학대학 운영계획서를 입학정원 30명 수준으로 수정해 4월 9일까지 제

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호 팀장은 “교과부에서 2011년 말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해 입학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짓겠지만, 우리가 받은 공문의 내용으로 약대 인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確定)이다”라고 밝혔다.

본래 교과부는 약학대학 최종 선정 발표 당시 일단 2011학년도에는 대학별로 20~25명의 정원으로 약학대학을 운영하게 하고, 올 하반기부터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과 투자계획의 이행 상황등을 점검해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교과부가 약학대학 운영방침과 관련해 발표한 이후, 30명 수준의 정원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교과부로부터 받은 공문 외에도 현재 우리대학은 약학대학 추진 상황 등을 평가받기 위해 교원 총원율은 물론, 약학관 공사에도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다.

유광호 팀장은 “내년 2월까지 약학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한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끝내 약학대학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산캠퍼스에는 1,000여 병상 규모의 일산병원·한방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의학, 한의학 임상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2011년에는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디스플레이전문대학원 등을 결집(結集)할 계획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법대 정용상 교수 법대학장협의회회장 연임

법대학장 정용상 교수가 지난 25일 프 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 4대강 학술심포지엄 참석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가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불교환경연대와 (사)에코봇 다 주관으로 열린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의 대규모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중등교원 임용고사 52명 합격

가정교육과 3년 연속 서울지역 합격자 최다

우리대학 2010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현재까지(5일) 총 52명으로 집계(集計)됐다.

특히 가정교육과는 임용고사 모집정원 40명 중 10명의 합격자가 나와, 전국 가정교육과가 설치된 13개 학교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輩出)했다. 한편 가정교육과 뿐 아니라 지리교육과 역시 인천 지역 모

집정원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 쾌거(快舉)를 이뤄냈다. 학과별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자료는 지난 5일까지 파악된 자료로 합격자 수는 추가될 수 있다.

△교육학과=7명 △국어교육과=14명 △역사교육과=11명 △지리교육과=7명 △가정교육과=10명 △체육교육과=2명

2010-1학기 재학생 수요일 불교대강좌

- 시간: 매주 5시 30분~7시00분(1시간 30분)
 - 1부(30분): 불교노래배우기, 정신집중 호흡명상, 참선, 요가, 염불(목탁배우기) 등
 - 2부(60분): 불교대강좌

● 장소: 정각원 법당

● 상임법사: 마가스님, 지도법사: 설정스님(대학원 석사 3학기)

● 불교대강좌 방향: 재미있는 불교,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월	일	강좌주제	강·법사	비고
3	10(수)	만해스님과 우리 동국대학교	법타스님	정각원장
	17(수)	노래하는 求道者 무상스님	무상스님	법명선원 원장
	24(수)	야생의 풀에도 부처님 마음이	대안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31(수)	아! 달라이라마	조현기자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4	7(수)	자기표현의 시대	이현정교수	광고홍보학과 교수
	28(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마가스님	천안 만일사
5	12(수)	부처님 오신 참 뜻	월주스님	전 총무원장
	19(수)	커뮤니케이션스킬과 자기개발	안종상 교수	경영대학 교수
	26(수)	첫 느낌의 착각	이윤영	정신과 의사(경북 안동)
6	2(수)	불교 명상법과 요가	태광스님	불교 명상전문가

불기2554(2010)년 상반기 ‘불교대강좌’ 일정 안내

- ◇ 일시: 매주 토요일, 1부-기도법회(10:00~11:00)
2부-불교대강좌(11:00~12:00)

◇ 장소: 정각원 법당

◇ 대상: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월	일	강좌주제	강·법사	소 속
2010	6(월1.21)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3(월28)	예경의 기본 - 천수경1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20(월2.5)	예경의 기본 - 천수경2	"	"
3	27(월12)	불교와 생활인테리어	세준스님	한국풍수지리연구원장
	3(월19)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0(월26)	불타의 교설 - 아함경1	최봉수	동산불교대학 교수
4	17(월3.4)	불타의 교설 - 아함경2	"	"
	24(월11)	춘계성지순례	"	"
	1(월18)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5	8(월25)	불교의 수행법 - 행복명상1	마가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15(월4.2)	불교의 수행법 - 행복명상2	"	"
	22(월9)	휴회(봉축일 다음날)	"	"
6	29(월16)	불교복지 - 효의 사회화 운동	각현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5(월23)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2(월5.1)	예경의 기본 - 반야심경1	정병조	문과대학 교수
7	19(월8)	예경의 기본 - 반야심경2	"	"
	26(월15)	불교예술 - 법패	최종민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3(월22)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8	10(월29)	불타의 교설 - 금강경1	현명곤	동국역경원 상임 정의위원
	17(월6.6)	불타의 교설 - 금강경2	"	"
	24(월13)	불타의 교설 - 금강경3	"	"
8	31(월20)	휴 회 (개인정진)	"	"
	7(월27)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4(월7.5)	불타의 교설 - 유마경1	계환스님	불교대학원장/학장
	21(월12)	불타의 교설 - 유마경2	"	"
	28(월19)	불교와 건강 - 요가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 대표이사

학생 편의 위한 학습·휴게공간 대폭 확충

원흥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대 샤워실, 사과대 열람실 확대

학생들의 휴게공간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운영지원본부는 학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이 주관한 이번 '2010년도 주요 환경개선 사업'은 건물 면적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중앙도서관 및 사회과학관, 원흥관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우선 사회과학관에서는 비효율적으로 공간이 배치됐던 개방형 열람실 '능금사랑'은 독립식 열람실로 바뀌

었다. 기존의 개방형 60개 좌석은 독립식 열람실 244석, 노트북 열람실 56석, 세미나 4개실로 변경 됐다. 또 능금사랑은 고액기부자인 박준형(신라교역 회장)동문의 이름을 딴 '능금사랑 박준형 홀로 개명(改名)됐다.

이와 더불어 사회과학관 로비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다. 사회과학관 입구가 리모델링됐고, 사회과학대학사운영실은 벽을 유리로 교체해 개방형 행정공간으로 변경됐다.

또 사과대 학사운영실에서 각종 증명서발급, 노트북 대여 등 본관의 CS센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

다. 한편 원흥 1관에서는 지하 아리수 식당과 매점이 옥상으로 이동됐고, 원흥 2관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이뤄졌다. 더불어 원흥 1, 2관을 잇는 옥상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동절기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아리수식당이 있던 공간에는 샤워실과 강의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2층부터 옥상까지 운행 가능한 엘리베이터는 실외에 있는 계단실에 이달 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앙도서관에는 옥상 출입구 옆에 옥상카페 '위'를 조성

해 학생들이 학습도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옥상정원에는 운동시설과 휴식시설을 설치했다. 정보문화관의 뒷편 쪽문에는 철문을 없애고 계단 자재를 시멘트에서 목재로 바꿨으며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상록원 앞 휴게 공간 환경 개선공사 ▲명진관 강의실 환경 개선공사 ▲경영관 공인회계사반 공간 확충공사 ▲원흥관 및 만해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학생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축구부, 전국춘계대학 연맹전서 3위

수비수 안일주 선수 우수선수상 수상

우리대학 축구부가 제 46회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제 46회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은 지난 달 18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려, 총 53개의 대학 축구팀이 참가했다.

예선을 조 2위로 통과한 우리대학 축구팀은 광주대, 건국대, 한남대를 차례로 꺾으며 준결

승에 진출(進出)해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준결승에 진출한 우리대학은 영남대와의 준결승에서 3대 0으로 석패해 고려대와 함께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축구연맹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수비수 안일주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수상(受賞)했다.

올해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선정

2년 연속... 여성부로부터 6천만 원 지원

우리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하는 '올해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대학'으로 2년 연속(連續) 선정(選定)됐다.

이번 선정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부로부터 지난해에도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선정 대학 중 가장 높은 금액인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금은 기업탐방, 멘토링 사업 등 여대생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부로부터 지난해에도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아버이 장학기금 2천만 원 모금

현재까지 약 100여명 학부모 참여

지난 2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아버지 장학기금(獎學寄金)이 현재 1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총 2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대외협력단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약 50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1,000여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으며 현재

50여 명의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참여해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이 모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협력팀의 김진환 팀장은 "처음 시도되는 아버지 장학기금임에도 많은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외국인 인재유치 협약

유학생 적극유치 및 체류 지원 서비스 실시

우리대학이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법무부와 우리대학은 향후 우수인재 유치 협력과 더불어 외국인이 생활하

기 좋은 캠퍼스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대학은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힘을 예정이다.

네덜란드 2개 대학 등과 교류협정

6개 대학 협정... 올해부터 교환학생 파견

우리대학이 네덜란드 Sax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등 총 6개 대학과 각각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해 올해부터 교환학생을 파견(派遣)한다.

이번에 우리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모두 6개로,

네덜란드의 Sax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헝가리의 Szent Istvan University, 필리핀의 University of the Cordilleras, 일본의 Kwansei Gakuin University, 라오스의 National University of Laos이다.

우리대학 병원, 종교인 의료비 할인

조계종 신도들에게도 할인 혜택 적용

앞으로 우리대학 병원을 이용하는 신부, 수녀, 목사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스님과 똑같이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대학과 조계종은 지난 4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合議)하고 오는 9일 협약(協約)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다른 종교 성직자 뿐만 아니라 조계종 신도에게도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적용(適用)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우리대학과 조계종은 신부, 수녀, 목사 등 다른 종교 성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최대 25%할인을 적용할 예정이고, 조

계종 신도에게는 2009년 이후 발급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환자에 한해 비급여항목 15%, 건강검진비 20%를 할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할인이 적용되는 병원은 일산병원·한방병원과 경주병원·한방병원, 분당 한방병원 등 우리대학 의료원 산하 5곳이다.

조계종은 "감면되는 의료비 액수 만큼의 손실은 '보시'차원에서 중단과 동국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은 오는 9일 자승, 혜총, 정련스님과 오영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다.

중앙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건물	층	장소	요일 구분	
			평일	토요일/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21:00	09:00-17:00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 1층	사회과학실		
	지하 2층	인문과학실		
	4층	증축 열람실	06:00-24:00	
	지하 3층	별관 열람실		
		PC 검색코너	08:00-23:00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21:00	09:00-17:00 (일요일 휴관)
		멀티미디어실		
	2층	참고자료실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 기간 : 2010. 3. 2(화) ~ 6. 21(월)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및 법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신·편입생 도서관 이용 안내

2010학년도 신·편입생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해야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
 가. 인증 즉시 대출권한 부여, 미 인증자의 대출권한은 무기한 미 부여됨.
 나. 교육진행 중 각 메뉴별 접근이 불가능하여 이용자 교육 내용의 전체적인 진행만 가능
 다. 플래시 문제풀이 코너 삽입(한 코너당 2분항, 총 3파트)으로 문제풀이 이후 다음 과정으로 진행됨
 라. 교육종료시 인증화면을 통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마. 2009학년도 신·편입생 역시 이용교육 미수료자는 자료대출 불가
- 교육기간 :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
- 문의 : ☎ 02-2260-8622 (중앙도서관)

도서관 나눔장터 행사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공간의 한계로, 과다한 복본이 있거나 장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순차적으로 제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제적도서 판매 행사'에서 남은 도서를 폐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제공하여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에서 수증한 도서 중 복본을 필요한 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국인이 서로 책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도서 교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제자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안 보는 책을 무상으로 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그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도서 나눔으로 동국인이 하나 되는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간 : 2010. 3. 8(월)~3.19(금), (10일간, 09:30~17:00, 토요일 일요일 제외)
- ▷ 행사장에 전시된 도서는 모두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음. (1종 1책에 한함)
 나가실 때 꼭 대출실에서 제적도서 반출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
- ▷ 도서나눔 목록: 7,612책(학교와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참조)
- ▷ 행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소정의 책값을 지불할 수도 있음.
- ▷ 행사를 위하여 도서를 기증할 수도 있고, 다른 도서와 교환할 수도 있음.
- ▷ 모금된 책값은 교비로 입금되어 전액 도서구입에 사용할 예정임.
- ▷ 비치된 도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종료 후 폐기함.

※ 중앙도서관 전시실 사용관계로 도서관 나눔장터와 제적도서 판매 행사를 병행합니다.



▲한 학회가 세미나를 통해 열린 토론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재 순서

- 1. 침체된 동학의 대학문화
- 2. 현 대학문화, 대안은 있는가?

학생 스스로 기획하는 생산적 문화 절실

지역·계층과 어떻게 연대할 지에 대한 고민 필요

2000년대 이후 ‘대학문화는 죽었다’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표현에 대한 반발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언급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학문화가 심각한 위기 혹은 실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 기획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동아리문화와 대학축제, 그리고 학회 활동 등 대학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은 대학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대학문화

이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 처방 등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관심사는 정치와 멀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대학생이 더 이상 소수의 특권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청년 실업 등 취업의 문제, 즉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면서 학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대중문화의 급격한 팽창은 더 이상 대학문화의 차별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공했다. 결국 지금의 대학문화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회 활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학회는 주식투자와 같은 직접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전지구화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동시에 대학사회 내부의 대응이나 동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전지구화는 가능성과 더불어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문제 의식과 대안을 마련하려는 학회를 지향하고 구성 및 조직했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학회들은 과거 ‘역사’에 매몰된 채 학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과거가 아니라 현실과 대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의식과 운영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대학축제 역시 과거 ‘대동제’라는 대학축제만의 차별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구성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결국 대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연예인을 초청하고 버라이어티쇼를 재탕하는 수준에서는 대학축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중제와 대중문화를 넘어서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출발점은 이벤트 업체나 후원 업체 중심이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직접 프로그램과 운영을 전개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적인 모색 이뤄져야

동아리활동은 학내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으로 대학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과감한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동아리 활동은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도 얼마든지 많다. 동아리연합회도 동아리활동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동아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운영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동아리들이 지금의 동아리문화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동아리연합회 등에서도 그런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학문화의 화두는 글로벌문화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설을 고민할 시점이다. 즉 로컬문화로서 대학문화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문화와 어떻게 접촉하고 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일은 단순히 좁은 시각을 가진 편협한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

로그램을 생산하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 영역의 장점은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문화는 바로 그러한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산함으로써 대학사회와 지역사회의 내부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대학생 몇 사람이 학교 앞에 소규모 공간을 만들어서 연극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실험들이 결국 대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생산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그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들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학생은 온통 ‘인재’ 혹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맞춤형 인간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힘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대학문화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구상하고, 조직하고, 풀어나가는 문화적 기획과 실천, 노력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기획실장

송경원의 지면상영



(1)돼지가 있는 교실

기교 없지만 담백한 감동 우리나라

어느 영화제를 막론하고 영화제의 거리는 항상 들뜬 열기에 휩싸여 있다. 전주영화제의 관객들로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영화의 숲 속을 거닐기를 자청하여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은 사람들이나, 길도 나있지 않은 막막한 숲 속일지라도 특별한 지도 없이 잘도 헤쳐 나간다.

그래서일까. 가끔은 이미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열혈 관객들이 뿜어내는 열기에서 벗어나 숨통을 틔워 줄 영화가 그립다. 아닌 게 아니라 유독 영화제에 오면 관객에게 사색과 성찰을 요구하지 않는 넉넉한 영화들이 보고 싶어진다. 평소에는 진부하다며 눈길 주는 조차 인색했을 그런 영화들의 제목들이 별스럽게 고딕체의 입체적 글씨로 도드라져 눈에 쪽쪽 들어오는 것이다.



▲돼지가 있는 교실
(School Days With A Pig, 2008)
장르 : 코미디
감독 : 마에다 테츠

작년 전주영화제 작품 중 유난히 눈에 들어온 영화는 바로 ‘돼지가 있는 교실’이었다. 제목부터 인상적인 이 영화는 어떤 형이상학적 표현을 제목에 압축시킨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돼지가 있는 교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6학년 2반의 담임인 호시 선생은 어느 날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 1년 동안 잘 키운 후 졸업식에 잡아먹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식량’이 될 것이라는 미래시체가 아이들에게 당장에 실감이 될 리 없고, 아이들은 돼지에게 ‘P짱’이라는 애칭 어린 별명까지 붙여가며 정성껏 돌보기에 이른다. 이 시점부터 애초에 다 키우면 잡아먹자고 식량의 관점에서 접근한 돼지를 두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눈높이를 맞추게 된 어린 학생들의 고민은 사투 진지하다. 이들이 돼지의 미래에 돼지와 관련된 자신들의 미래, 그리고 식량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가볍지 않은 울림마저 전해 준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물을 희생시킬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해주는 이 영화는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주제를 객석에서 튀어나온 표현 그대로 ‘캐감동’스럽게 포장할 줄 아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돼지가 있는 교실’은 끊임없이 사색하기를 강요하는 영화들 사이에서 그저 영화가 이끄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한 감동에 빠져드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다. 특별한 기교 없이 소박하지만 담백한 요리처럼 깊은 맛이 나는 이런 영화를 발견할 때면, 때론 그저 의심 없이 따라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영화의 깊고 우거진 숲 속을 따라 걷느라 다리가 아파 올 때, 잠시 쉬어간 그늘에서 따뜻한 한 방울의 눈물을 얻어갈 수 있다. 올해는 또 어떤 시원한 그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영화를 발견하는 것도 영화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수료

이번 1489호부터 연재될 송경원 영화평론가의 '송경원의 지면상영'은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정식 개봉을 하지 못한 흥미로운 소재와 내용을 담고 있는 숨겨진 영화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ROTC!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입니다.

Future by ROTC

학군사관(ROTC) 51기 · 52기 후보생 모집안내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자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1기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2기(1학년 사전선발)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0년 3월 2일 ~ 26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 1차 필기고사 : 4월 3일(토) / 발표 : 4월 23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6 ~ 5. 14(3주) / 발표 : 6월 4일(금)
- 신원조회 : 6월 7일 ~ 8월 20일(11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수)

▶ 문의처 : 각 대학 학군단,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46년 성우생활 원동력은 동국”

성우계의 살아있는 역사, 김종성(국문67졸) 동문 인터뷰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2〉 성우 김종성

Q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우(聲優)는 누구입니까?
A. 모(네모)는 김종성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그의 녹음실에서 얼굴 없는 배우, 성우 김종성(국문67졸) 동문을 만났다.

종성(鐘聲) 즉 ‘종의 소리’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힘 있고 박진감 넘치는 목소리의 소유자다. 그러한 그의 명성에 걸맞게 그는 46년 동안 목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격동 50년’이라는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 비화를 전하며 청취자(聽取者)들의 가슴을 울렸고 ‘스펀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는 특유의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傳達)함으로써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그는 ‘대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슈퍼스타K’ 등의 목소리로 출연하며 프로그램의 감동과 재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드라마 작가를 꿈꿨던 문학청년

김종성 동문은 현재 성우계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성우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성우가 되리라곤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는 김 동문. 그는 “글쓰기를 좋아해 10대,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글쓰기로 보냈을 정도로 문학(文學)에 관심이 많았다”며 우리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한 계기를 밝혔다. 작가

를 꿈꾸던 그가 성우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 드라마에 매료돼 라디오 드라마의 극본(劇本)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당시 MBC 라디오 드라마 PD였던 백민 PD에게 무작정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라디오 드라마의 극본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학원비 없어 청소하며 성우연습

그러한 그의 열정 때문이었을까. 라디오 드라마 PD라는 직업과 성우학원 강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백민 PD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종로의 성우학원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그는 그곳에서 우연찮게 성우라는 직업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우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다고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정식으로 성우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성우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누나를 찾아가 학원비를 부탁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학원 원장에게 학원 청소를 하는 대신 야간에 연습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열정을 높이 산 학원 원장이 선뜻 승낙을 해줬고 그는 매일 학원 청소를 끝낸 후 밤 늦게까지 연습에 매진(邁進)했다. 결국 그는 이듬해 중앙방송(TBC)의 1기 성우로 발탁(拔擢)돼 성우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

대학서 배운 문학적 소양이 큰 도움

그는 “46년 동안의 성우인생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문학과 재학시절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문학적 소양들이 현재 성우로서 다양

한 장르와 캐릭터를 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스승에 대한 감사(感謝)를 표시했다. 그는 “그 당시 동국대 국문학과에는 서정주, 양주동, 조연현 등 대단한 교수님들이 많았다”며 “그 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문과 동기와의 추억도 잊을 수 없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 어린 감정을 드러냈다.

“국문과 동기인 소설가 조정래, 시인 박재천과 대학시절 문학에 대해 논하며 남산에서 막걸리를 마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들과 지금까지도 우정(友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꿈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김종성 동문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성우 중 하나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성우가 되기까지 학원비를 스스로 충당(充當)해야만 한 그였다. 성우가 된 후에도 PD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그만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다.

오려려 그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우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내게 닥친 시련을 극복(克服)하려는 강한 의지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배들에게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라”며 “노력한 만큼 꿈은 다가 올 것이다”고 당부했다.

‘오디오 북’이라는 새로운 꿈 꿰

“소리의 예술세계는 강하다”고 말하는 김종성 동문. 문학과 소리에 모두 애정이 있는 그는 소리의 예술성과 문학의 재미가 융합(融合)된 오디오북에 빠져있다. 그는 고전 문학을 소리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현재 삼국지와 백범김구 같은 문학을 오디오북으로 완성한 상태다. 오디오북(Audio book)은 활자(活字)를 음성으로 옮긴 ‘소리로 만든 책’이다.

그는 이 오디오북 작업이 그의 또 다른 꿈인 문학을 펼쳐나갈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문학과 소리를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길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주요 출연작

△제 1공화국 (MBC) △제 2공화국 (MBC) △제 3공화국 (MBC) △스펀지 (KBS) △격동 50년 (MBC) △용의눈물 (KBS) △태조왕건 (KBS) △불멸의 이순신(KBS) △천추태후 (KBS) △슈퍼스타K (MNET)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tvN) △ 평가 (KBS)

프로필

▲ 1943년 공주 출생 ▲ 1967년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 1964년 중앙방송 (TBC) 성우 공채 1기 입사 ▲ 2010년 현재 프리랜서 성우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호로 동옥고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노약자

직장인

여성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세 생명이 쉼트는 화창한 봄이 찾아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보람찬 일들로 풍성함이 향상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 지기 쉬운 봄날에, 힘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로 감사와 효도와 사랑을 나누시며 활력과 건강함을 유지하세요.

동옥고	판매가격	할인판매가
용량1kg	25만원	18만원
500g	15만원	10만원
300g	9만원	7만원
초코동옥고	판매가 2만원	

◆ 취급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DONGGUK 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신입국원 모집]

*

모집기간 : ~2010년 3월 15일
 모집방법 : www.dubscast.com 지원서 작성
 모집대상 : 동국대학교 10학번 신입생
 모집분야 : 제작부(PD) · 보도부(REP) · 영상음향부(ENG) · 아나운서부(ANN)

임시소집 : 2010년 3월 15일 늦은 6시
 면접 : 2010년 3월 17일 늦은 6시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 본관스튜디오 02)2260-8503
▶ 학생회관 방송제작실 02)2260-8504

http://www.dubscast.com

약대유치를 통해 본 우리대학 BT분야 발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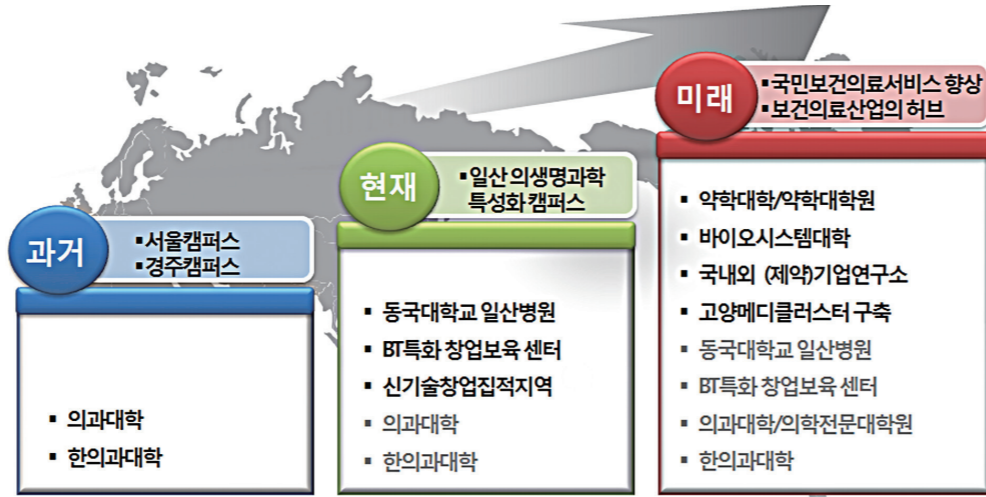
밸류체인의 완성과 학문간 연계 가능해져

이번 약대 유치는 우리대학이 제 2의 도약을 위한 커다란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약대의 교육 및 연구개발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본교 바이오분야의 협동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전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폭발적 영향력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으로서 2020년에는 BT산업이 IT산업의 시장규모를 능가하여 BT산업 중심의 경제로 변모할 것이며 BT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4,360억불(2000년)에서 1조320억불(2010년)으로 연평균 1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약학대학 신설이 우리대학 발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약학대학 신설을 통해 우리대학의 제3캠퍼스인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가 바이오, 제약, 의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과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메디클러스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약학대학 신설은 우리대학의 의생명과학분야 발전 노력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의대·한의대·바이오시스템대가 모여 있는 BIO분야 특성화 캠퍼스로서 이번에 우리대학이 약대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BT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약·바이오분야가 명실공히 한자리에 집적하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게 되었다.



동국대 약학 관련 연구자들의 보유 기술에 대하여 기술 tree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바이오 분야의 신약타겟 발굴 분야 및 의과대 한의대 등의 임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약개발 Value Chain(기초연구→개발연구→전임상→임상4단계)에서의 취약분야로 인하여 기초 연구의 결과들이 임상 연구로 연결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밸류체인 통한 연구여건 조성

향후 본교의 약학대학 및 신약 개발연구센터를 통하여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개발되는 기초 및 응용연구 결과들이 보다 더 활성화된 중개연구를 통해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이는 현재 바이오시스템대학의 기초연구들이 완성된 밸류체인 아래에서 명실공히 바이오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의 중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해졌다고 본다.

동력학 기술, 전임상 독성 평가 기술 등으로 바이오시스템대학 소속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공동연구가 예상된다.

학문간 연계 가능성

향후 본교의 바이오 분야 기초연구개발 중에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약대의 신약 개발 연구내용과 많은 협력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0년부터 새로이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한 본교 바이오시스템대학의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의 연구자들과 보건의로 및 신약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솔지유 기술개발을 포함한 청정환경 생태연구, 웰빙바이오 신소재 개발, 무공해무화학 비료의 기능성 청정유기농 식품소재개발, 신기능성 피부항장제 개발 등에서의 공동연구가 선순환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교의 이공계열의 모든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와의 융합(融合) 및 다학제간 연구가 약학분야와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닦여졌다고 본다.

경기북부 거점 대학으로 도약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 발전하는 곳으로서 향후 동국대의 의·약·바이오분야가 집적화될 것이고 의과대학캠퍼스는 명실공히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아래와 같은 협약 및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보다 더 증가된 협력연구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확신하며 서울캠퍼스와 더불어 동국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상을 여는 통일대비 동국대 일산캠퍼스로 웅비(雄飛)할 것이다.

박정국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장

인터뷰 - 천문우 약대추진위원단장

“약대유치 원동력은 구성원간의 화합”



“약대유치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이사장, 총장, 학장 등 학내구성원의 의지(意志)가 집중됐던 덕분에 가능했다. 전반적인 인프라구축이 미비했던 점 등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도 약대유치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대 약대 학장 출신으로 우리대학 약대 유치를 이끌어낸 천문우 약대추진위원단장은 동대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수개월간 약대유치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우리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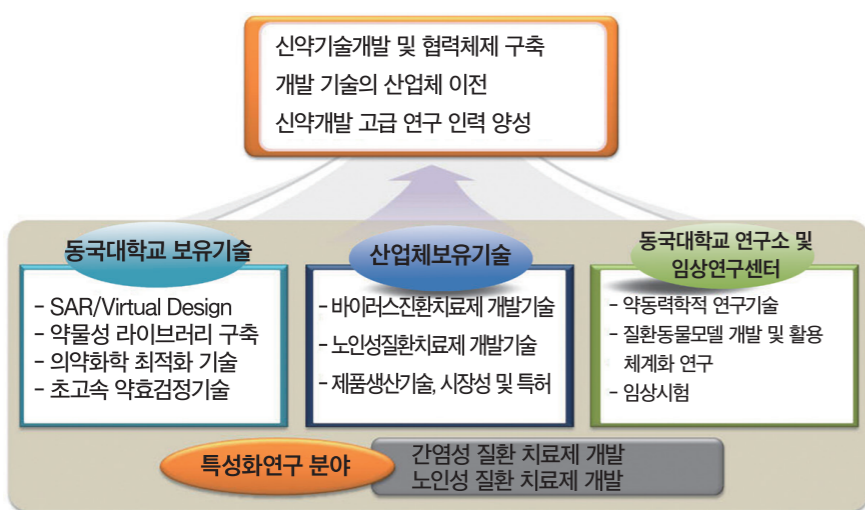
약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提言)을 내놓았다. 약대 유치를 위해 처음 우리대학으로부터 석좌교수 제의를 받았던 천 단장은 “당시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천 단장은 “처음 석좌교수 제의를 받았을 때 동국대가 인문사회분야에 비해 자연과학분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고민 속에서 제의를 받아들인 결정적 이유는 이사장, 총장, 학장이 보여준 목표에 대한 의지와 열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한의대 등과 연계해 BT 특성화에 집중해야”

“우리대학은 인프라 구축이 다소 미비(未備)했다”며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신청서 작성에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고민 해결의 열쇠를 집필교수, 행정직원들과 협심을 통해 찾았다. 이런 추진위원단의 노력과 더불어 학내 모든 구성원의 목표를 위한 협심이 약대유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관해 천 단장은 “약대 유치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구성원간의 화합(和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약대 유치라는 결실을 얻은 천단장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천 단장은 “약대 유치라는 큰 목표는 이뤄졌지만 솔직히 정원 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아쉬웠었다”며 그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약대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초, 개발, 전임상, 임상이라는 4단계의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밸류체인의 완성에 대해 천문우 단장은 “밸류체인의 완성은 연구에 있어 학문 간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으며, BT 연구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며 “앞으로 동국대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전망(展望)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그는 “약대의 발전을 위해 교수 확보율, 자연과학 인접분야 교수업적 평가, 대학원생 논문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약대만이 아니라 인접학문의 단과대 모두 제 몫을 해야 약대의 발전은 물론 동국대의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향후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대학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의대·한의대·바이오시스템대 등, 약대와 연계하여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BT분야 특성화 캠퍼스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2011학년부터 설립되는 약대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노력을 더해 최고의 약학 전문 인력 배출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1년만에 기자 다 됐어요!

기자가 되고픈 새내기들! 동대신문사가 환영합니다



- 지원자격 10학년
- 모집대상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 원서마감 3월 18일(목) 오후 5시
- 면접일시 3월 18일(목) 오후 6시
- 문의 홈페이지(www.dgupress.com)의 게시판 또는 02)2260-3491~2
- 혜택 소정의 장학금 및 활동비, 신문사 내 PC제공

동대신문사

기획점검-국어국문학과 BK21 사업단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진연구자들간 소통과 유대구축 '성과'

나고야대·타이완 정치대 등과 지속적 학술교류도 실시

국문학과 BK21 사업단에서 진행해온 사업

학술 세미나	'제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 '제1회 동아시아 국제 신진연구자 학술교류회'
해외 연수 파견 지원	2009년 1학기에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생 7명을 선발하여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으로 단기연수를 보냈다.
그 밖의 지원 사업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학술지 같은 공인된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저명 학술대회에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에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

국가 연구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국가에서 도입한 BK(Brain Korea:두뇌한국)21 사업에 지난 2008년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이하 국문과)가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돼 현재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대학 국문과 BK21 사업단은 지난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2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 서울대 국문과를 제치고 신규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학에서의 전승과 번역 연구인력 양성사업단'(단장=정우영·국어국문학과)은 사업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4년간 약 15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중 상당부분을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국내외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국문과 BK 사업단은 신규 사업단 선정 후 지금까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2월에는 우리대학 경주캠퍼스에서 미국, 일본, 타이완, 중국의 문학전공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제1회 동아시아 국제 신진연구자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학술포럼 개최

국문과 BK21 사업에 대해 박광현(국어국문학과)교수는 "2006년부터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와 고려대 국문과에 비해 노하우가 부족한 만큼 사업단 운영상의 효율성은 다소 뒤처지는 편이다"며 "그러나 참여대학원생들이 '동국대 국문과'라는 제도적, 지역적 틀을 넘어 국내외의 여러 신진연구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 일환으로 이미 작년 1학기에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생 7명을 선발하여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으로 단기연

수를 보냈다"며 "앞으로 우수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외연수도 확대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연구자간 교류활동 장려

'국어국문학'이라는 학문과 그 편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성의 제도가 지닌 고착성과 폐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서는 곤란하다. 이에 관해 박 교수는 "지난해 개최한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의 대학원생들, 특히 지방 소재 대학 대학원생들에게 발표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며 "이는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들간의 자유로운 학문적 소통과 유대가 이뤄지는 매우 이례적인 학술프로그램으로 안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논문 장려 사업 진행

국문과 BK21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같은 학술연구프로그램을 제외

하고도 다양하다. BK21사업은 학문적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학술성과를 집적하고 그 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다수 배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학술세미나 활동과 그 성과로서의 공동논문 작성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학술지 같은 공인된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저명 학술대회에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에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 역시 국문과 BK21사업단이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는 연구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국문과 BK21 사업단은 일본 나고야대, 타이완 정치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학술교류행사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일본(나고야)과 한국(경주)에서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회를 개최했으며 올해에도 타이완에서 신진연구자들간 학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어국문학'이라는 학문영역을 급변하는 인문환경에 걸맞게 개조한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교육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국문과 BK21 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적 연구사업들을 진행하며 현재 국어국문학계가 당면한 제도적, 학문적, 교육적 차원의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gu.edu



연구소 탐방

<1> 황사·사막화 방지 연구소



녹색지구 만드는 열정 숨 쉬는 곳

내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자문 맡아 준비분주

해화관 10평 남짓한 연구실 한 칸에는 매년 반복되는 황사 피해를 예방하고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몽골 등지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다. 바로 강호덕(생태환경공학) 소장의 지도 아래 연구원들이 모인 '황사·사막화연구소'다. 2002년 최악의 황사 이후, 강 소장은 산림청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목 및 초종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년 간 연구 끝에 2006년 12월 우리대학 '황사·사막화연구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해화관 4층에 자리 잡은 '황사·사막화연구소'에는 그와 연구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비타민나무와 포플러의 성장을 실험하는 기구들을 비롯한 각종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다.

'황사·사막화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사막화방지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매년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황사 현상의 진원지는 바로 중국과 몽골이다. 그나마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몽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몽골 민족의 오랜 유목생활로 인해 몽골 영토 내 초목은 점점 줄어들고 1년에 30헥타르씩 견잡을 수 없는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몽골 출신 연구원 문희채씨는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시설도 없을뿐더러 관심조차 없다"며 안타가워했다.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비타민 나무의 품종 개량이다. 비타민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을 대량증식 할 수 있다면 사막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황사·사막화연구소'의 연구는 늘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사막화 방지 연구분야에 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이 부족했기에 연구소는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외국 연구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하고 '황사·사막화연구소'의 품종들을 몰래 채취해 연구 업적을 가로챈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몽골에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연구 결과로 사막화 방지를 당장 실현시킬 순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숨은 열정들은 내년 창원에서 열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빛을 보게 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에 발족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서 중요한 자문을 맡게 됐다.

드넓은 태평양에 돌맹이라도 던져보자는 심정으로 연구를 시작한 강호덕 교수와 연구원들. 오늘도 '인간이 못할 일은 없다'는 각오로 언젠가 펼쳐질 녹색지구를 위해 밤낮 연구하는 그들의 열정은 사막화보다 이미 몇 발짝 앞서 있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어느 날 여인이 먼저 얘기하더라.
"스님이 머리를 기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머리를 깎을까요?"

선객

불교신문 독자들이 열광한 법광 스님의 '에세이禪' 단행본으로 출간!

천방지축 개구쟁이 스님의 솔직담백한 선방 이야기!

집착하지 말고 한다. 사랑도 다 집착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면 보통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스님이라면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웃음이 너무 천진스러워서.....
신경림(시인)

스님을 만나고 산문山門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늘 밝고 아름답다.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을 한 아름 받고서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만 스님(선운사 주지)

법광 스님의 글에는 '솔직한 수행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이야기에서 백척간두진일보의 치열함도 발견합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4x6판 양장본 | 256쪽 | 값 10,000원

마음의 발견 제1탄

이 시리즈는 현대인의 마음에 등불이 될 미래 콘텐츠입니다.

화제의 책

불교 언론인 30년 담긴 칼럼 선집(選集)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

지은이 홍사성
펴낸곳 우리출판사
12,000 원 / 352 쪽

“불교는 나의 사랑이자 미움이다. 희망이자 절망이다”

홍사성 동문은 저자 서문에서 불교에 대한 심경을 그렇게 토로했다. 평소 독실한 불교 신자로, 또한 정론직필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저자의 이력에 비추보면 위의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도발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를 읽다보면 불교를 바라보는 저자의 안타까움

과 분노에 절로 머리가 끄덕여지고 만다.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는 저자 홍사성 동문이 불교 언론인으로 30년간 여러 신문과 잡지 등에 실었던 칼럼들 중 몇 편을 선별해 출간한 책으로 출판과 동시에 불교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에서 저자는 불교계의 치부에 대해 미움과 절망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미움과 절망을 털어냄으로 미래 불교의 사랑과 희망을 세울 것을 주문한다. 저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신앙인으로 “불교만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가르침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들은 한국불교가 건강한 정법으로 바로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쓰여진 것들이다. 그렇기에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때론 필화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글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은, 앞으로 풀어야 할 현재 진행형인 불교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의 이기적 필요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대로 왜곡

하고 훼손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해석하고 이를 수행과 실행에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책 내용의 대부분이 부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근거로 삼는 것, 책의 제목을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라 붙인 까닭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

하기에 불교를 불교답지 않게, 더러는 권력과 이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행자들, 학문보다는 즐기기엔 익숙한 학자들, 복지기보다는 복받기에만 애가 많은 신도들.

저자는 한국불교의 치부에 가감 없이 메스를 들이댄다. 어느 한 부류가 아닌 모든 불교인들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노라면 자연스레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교인으로서 또한 불교 신자로서 저자의 지적에 공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독자들의 행동으로 결정될 것이다.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를 읽으며 저자가 말하는 참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해 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이상철 교수의 독서산책

독특한 인생 교육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지은이 하버드경영대학교수 15인
펴낸곳 세종서적
10,000원 / 212쪽

하버드 경영대학의 MBA 수업에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 수업에는 평생처럼 사례 연구에 대한 열띤 토론도 없고, 교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학생들의 격렬한 반응도 없다. 수업시간의 말미 10분에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자신의 이야기이자 자신이 최고의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이야기의 내용은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리더(leader)로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이 책은 2002년 하버드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Daisy Wademan 이 재학 중 마지막 수업시간에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글로서 남기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졌다. Wademan과 그의 MBA 동기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미쳤던 교수들의 강의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한 책이다. 책 속에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들이 풀었던 15편의 독특한 인생교훈이 담겨져 있다. 1부 ‘세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목표를 위해 자기 관리를 하라’에서는 자신이 목표로 정한 미래의 모습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략적 또는 심리적 도구에 대해 설명한다. 3부 ‘리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에서는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며, 동료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부 ‘올바른 가치를 세우라’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와 사업과 양심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자신의 인생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간은 대학생이다. 대학생 때처럼 순수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민할 기회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우선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험하게 될 미래는 불확실하고 위험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생의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이 책은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제공해준다.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120학점을 수강한다면, 40명의 교수를 만나고 졸업하는 셈이다.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씩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40가지는 얻는 셈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행로를 설계하고, 그 길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들이 이번 학기에도 봄꽃처럼 동학에 만개하길 기원한다.

(회계학과 교수)

이주의 새책

새내기를 위한 리얼캠퍼스 시트콤 ‘소리질러’



소리질러

지은이 손홍규 외 8인
펴낸곳 한결음 더
8,000 원 / 264 쪽

대학생이 되면 멋진 사람과 연애를 해야지. 대학생이 되면 평소 관심 있던 동아리에 들어가 동아리 활동을 해보아야지. 대학생이 되면 과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야지.

평소 TV 드라마 속에서만 대학생들의 생활을 봐왔던 새내기들이라면 누구든 한번쯤은 해봤을 생각일 것이다.

우리대학 출판사업팀의 교양도서 전문 브

랜드 ‘한결음더’에서는 이 같이 대학 생활에 기대하고 있을 새내기들을 위해 리얼 캠퍼스 시트콤 ‘소리질러’를 출간했다.

‘소리질러’는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진짜 대학 생활에 관해 들려주고자 만들어진 리얼 캠퍼스 시트콤으로 우리대학 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출신인 아홉 명의 신세대 작가들이 자신들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삶을 풀어내 새내기들에게 현실감 있는 대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리질러’의 스토리는 철학과 대학원생 신동국, 퀴카 연극학부생 한명진, 바쁜생활사나이 국문학과 조정도, 카리스마 회장 사회학과 최상욱이 학내에서의 자립생존을 모토로 삼은 가상 동아리 5자회를 결성하며 시작된다. 그리고 세 명의 꿈 많은 새내기 신입부원 오필동, 최학림, 정금강이 개성 넘치는 선배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좌충우돌 대학생활 적응기를 펼쳐 나간다.

3월 개강과 더불어 주인공 상록, 명진, 정도 그리고 5자회의 고문과도 같은 동국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화려한 다른 동아리들의 포스터와

비교해 볼 때 5자회의 포스터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포스터의 초라함과는 무관하게 5자회는 신입생 필동, 학림, 그리고 금강을 동아리 회원으로 맞이한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탓에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소설이 전개될수록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소리질러’의 이야기 전개는 3월 개강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대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야기 중간 중간 4·19 등반대회, 대동제 등이 등장하여 학교 행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도중 학교의 연혁, 각 건물들의 이야기, 동인 작가 등의 정보 또한 제공해 새내기들에게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리얼 캠퍼스 시트콤 ‘소리질러’는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현실적인 대학생활의 예, 학교 연혁 및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국 참고서적으로 새내기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현명한 네거티브



출판사 좋은책만들기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심리치로서 ‘현명한 네거티브’ 출간했다.

평소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자신에 대해 왤치 걱정스럽고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문학과 창작



한편, 문학아카데미에서 문학과 창작 2010 봄 편을 출간했다.

이번 ‘문학과 창작’에는 창간 15주년 기념 회고 및 신작시 특집 20인선 등이 담겨 있으며 박진호 화가의 예술산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밥도 안 사 주면서 아는 척만 하는 선배들 조심해, 진짜 피곤한 인종들이거든,,”

정체불명의 선배들이 나를 부른다.
“살고 싶다면 가입하라.”

소리질러

리얼 캠퍼스 시트콤

신세대 동문 작가 아홉 명이 새내기 후배들에게 대학생활 노하우를 선물한다.

손홍규 소설가 2001 작가세계신인상, 박진규 소설가 2005 문학동네소설상, 홍석진 극작가 2008 옥랑희곡상, 남상욱 극작가 2004 대산대학문학상, 윤고은 소설가 2008 한겨레문학상, 신현대 소설가 2001 세계일보 신춘문예, 정영효 시인 2009 서울신문 신춘문예, 최문애 극작가 2009 동아일보 신춘문예, 임세화 소설가 2007 창비신인소설상



변형 신국판 | 262쪽 | 8,000원

02)2260-3483, 2264-4708

도서출판 한결음 - 더는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자매브랜드입니다.



달하나 천강에

형제 같은 사제관계

강택진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소위 대박난 애플에 대해 혹자는 기발하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고도 한다. 어쨌거나, 결론은 항상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이다. 이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우리 젊은이들은 창의성이 없단다.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 말미에 숙제를 내고 나오는데 웅성거린다. '숙제가 몇 번 이래나?' '글쎄, 나도 잘 못 알아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얼핏 들린다. 나중에 오피스로 찾아와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어를 잘 못 해서요' 한다. 뭐가 죄송한 걸까? 영어를 잘 못 하는 게 죄송한 걸까 아니면 나중에 오피스로 따로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죄송한 걸까?

여러분은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대부분 그 창의적 사고가 표출되지 못할 뿐이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내용도 못 물어보는 학생에게 창의적 사고의 발표를 기대할 수는 없다. 수업 시간에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할 일이 아니다. 그때 손을 들고 질문해서 이해하는 것을 꺼리고 뒤로 미루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일이다.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완벽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질문이 노벨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진부한 '토론 문화의 부재(不在)' '주입식 교육의 잔재(殘滓)' 등을 또 들먹일 것인가? 물론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형제 같은 사제관계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형에게 털어놓고 충고와 격려를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같은 관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제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수밖에. 여러분의 지도 교수들을 찾아가라. 가서 물어보고 훈하고 격려를 받으라. 그래서 형제 같은 사제관계가 만들어져서 그 관계가 수업에서도 연구에서도 거리낌 없는 여러분의 창의성의 발로(發露)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굳이 알만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지나간 내 젊음의 방황이 아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후에 형 같은 교수를 만나 즐거운 연구 생활을 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문칼럼

김진기
국어국문학과 64졸
태림전자유한공사 명예회장

기업과 시(詩)

기업과 시는 전혀 상반된 목적 같지만 하나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적인 반면 문학, 특히 시는 자기표현의 만족과 성취다. 나는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왔다.

어느 날 다니던 직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강퇴된 후 나는 내 순한 용모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의 길에 들어서기에 이른 다. 우리 땅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기업이탈 것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한 여러 경로중 하나를 선택 했다. 구멍가게 같은 사업장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으나 방황하던 끝이라 천직이라고 여기고 동분서주(東奔西走)했다.

급작스런 생활의 변화는 항상 옛날을 묻고 왔다. 하는 사업은 전자부품 생산업중, 물량을 주문받아 생산 판매하는 일, 말이 좋아 사장이지 하는 일은 막노동꾼이었다. 인간비를 줄이느라 몇 안 되는 주부사원들과 매일 밤 야간작업을 했다.

잠시 눈 붙이는 밤에도 다리를 쪽 뻗지 못했다. 들어가도 끝이 없는 돈 돈 돈, 한 달은 그리도 빨리 오는지? 직원 월급 챙기랴 자체

비 지불하라 전기료와 각종 공과금, 거기가 있을만하면 찾아오는 명절, 달력에 빨간 날이 무서웠다.

일거리야 밀려있건 말건, 놀려야한다. 그러니 놀고먹다 시피 한 전 직장이 그리울 수밖에..... 이 무렵 폐쇄공포증을 경험했다. 조카 결혼일로 제주행 비행기를 탔는데 내려다보이는 조그마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었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야 했다. 사회에 대한 정신적 전환이 필요했다. 절을 찾았다.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산세우는 기슭에 조용히 자리한 사찰이 어쩐지 위안이 될 것 같았다.

철장사, 목어와 종과 북 가람의 뜻을 어렵게 느꼈다. 차차 마음이 안정을 찾기에 이른다. 당국이 야속했다. IMF당시 쓰러질 듯 위태로운 내 회사에 회생의 귀를 열기는커녕, 세무사찰을 감행, 거레처에서 받은 돈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안일무사 복지부동, 먼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한다. 당국의 만연된 풍토(風土)다. 은행은 또 어떤가? 대출금 매일까봐 이자상환

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저당 부동산은 서둘러 경매에 들어간다. 당국 어느 기관 하나 창의력은 실종 되고 도산 기업의 중요성은 모른다. 사정은 무시당하고 법 앞에선 미약하다.

도산(倒産)한 기업의 그간 고용창출의 이익은 애써 외면한다. 황폐한 터전위에서 돈이 샘솟겠는가? 약자가 추구할 수 있는 탈출구는 뉘드러다. 3년 전부터 책을 읽는다. 시집을 읽는다. 고생한 이야기를 시로 써보자. 시를 쓴다고 다 시가 되겠는가마는, 특히 시집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어떨 때엔 글자가 걱정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읽고 또 읽으면 보인다.

어떨 땐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오른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이것일까? 시는 고향에 두고 온 행운의 열쇠와 같아서 늘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은 대상이다.

나는 사업보다 시인 쪽이 가까운 것 같다. 물론 시가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는 편이다.



학생칼럼

권기홍
법학과 3학년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잘 활용하자

개강이다. 3월의 동약은 남산 자락에서부터 총무로까지 봄의 생기로 가득하다. 대학에 입학하고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새내기들과 하루하루를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든내기들, 수업과 연구에 불철주야 정진(精進)하시는 교수님들과 원활한 학사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선생님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동국 발전을 위해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큰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 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과 내실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기본과 내실은 다른 아닌 학풍(學風)이다. 학업에 있어서 얼마나 원칙적이며 깊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학풍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기 초 수강 신청 기간을 우리 모두가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이러한 풍조가

건강한 학풍을 건설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민이 든다. 이것은 단순히 학기 초 분위기만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수업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경우 개강 첫 주에 물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기에 여유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서 과연 이 수업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인지 나에게 맞는 수업인지 고려하기 위한 시간이지 결코 관례(慣例)처럼 개강 첫 주에는 수업을 함부로 빠져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한 학기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정 기간의 혼란 때문에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첫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첫 수업

부터 열심히 듣는 학우들을 좀 더 격려해 주고 수업태도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서서히 극복해 나가면서 개강 첫 주 첫 수업 시간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요즘의 경향이 워낙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아닌 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교수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니 만큼 학생들은 좀 더 성실히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의 의의에 맞게 수업에 임하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문화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대학의 학풍을 가꾸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경작되는 동약의 건실한 미래를 상상해본다.

만평

아웃사이더라서 행복해, 누가 부러워 줄 알아?

대학생 1/3이 아웃사이더, 그중 70%가 만족

백선 기자 amy@dgu.edu

2010년 1학기 모의직무적성검사

- 대상 : 전교생(재학생·휴학생·졸업생)
- 검사비용 : 학교부담금 11,000원 / 학생부담금 3,000원
-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 의 : 취업지원센터 (2260-3054)

구분	대상	접수기간	일시	장소	비고	
삼성그룹	삼성 SSAT 해법특강	600명	3. 4(목)~	3. 16(화) 14:30~17:00	중강당	150분
	삼성 직무적성검사	300명	3. 4(목)~	3. 16(화) 17:20~20:30	중강당	175분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SK LG Hanuна stx 외 16개 기업	200명	3. 4(목)~	3. 4(목) ~4. 23(금)	온라인	-

*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종류 : 삼성, SK, LGCNS, CJ, LS, LG화학, 동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화, 하이닉스, 두산, STX, 현대기아자동차, GS
* 참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검사 실시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010년 1학기 취업스터디그룹 정기모집 안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취업스터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활동지원 : 스터디활동 지도, 멘토 지원, 건설링, 활동지원금(평가에 의함) 지급 등
2. 모집대상 직군 · 직종 : 아래 직군 · 직종 중 선택

직군	직종
① 사무직군	재무/회계, 마케팅, 총무/법무, 영업관리, 해외영업, 무역, 광고/홍보, 구매/재재, 유통/물류, 상품 기획/MD, 기타
② 정보통신직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네트워크/모바일, 하드웨어, SI/ERP/솔루션, 기술영업 기타
③ 기술직	전기/전자, 반도체/LCD, 건설/건축/토목, 금속/재료, 기계/제어계측, 바이오/식품/제약, 석유/화학공학, 연구/설계, 생산/품질관리, 기타
④ 인사관리직	인사/노무(Human Resources Management) ※ 지원자격 : 2~3학년, 인문·사회·상경, 학점 3.2, 토익 600점 이상
⑤ 금융직	은행, 증권, 보험, 화재, 캐피탈 등
⑥ 아나운서직	공영, 민영, 인터넷, 사내 아나운서 등
⑦ 기타직	①~⑥ 직군을 제외한 직군 및 직종

3. 모집과정 : 신청→오리엔테이션(반드시 참석)→그룹확정→운영개시
4. 모집대상 : 취업목표는 있으나 혼자 취업준비가 곤란한 학생
5. 지원자격 : 2~4학년 1학기 휴학 및 재학생(졸업예정 및 기졸업생 제외)
※ 단, 인사관리직은 2~3학년 재학, 인문·사회·상경계열, 학점 3.2이상, 토익 600점 이상
6. 모집기간 : 2010.3.5(금)~3.12(금), 17:00까지
7.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 방문신청(가입 신청서 및 이력서 제출)
※ 양식 : 홈페이지 취업공시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취업지원센터 비치
8.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2010.3.16(화), 18:00~19:30,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내 용 : 프로그램 설명, 그룹배정, 캡틴(그룹장) 선출 등
9. 문 의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취업공시사항을 참고(문의전화 : 2260-3056)



시론

교육 선진화 정책, 비리의 꽃을 피우다

이종하 독일 베를린 자유대 철학박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사회영역에 소위 '선진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의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전 방위에서 강제의 논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이데올로기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사정관제, 교장공모제와 같은 교육선진화 정책을 양산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교육에서의 이명박'으로 알려진 공정책 전 서울시 교육감의 부패비리, 서류조작과 비공식 기어 입학제 기능으로 전락한 입학사정관제, 인사비리, 장학사 매관매직이다. 이 밖에 준비 없는 학교의 자율성은 확대 방과 후 학교사업 비리 등 '교장권력=교육 비리의 중요한 생산자이자 증개자'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지금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는 교육 비리에 대한 대책이 난무(亂舞)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계에 각성을 촉구하는 도덕적 호소 △ 교육 비리의 원인을 교육감 선출제도로 환원하는 교육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 △교육계에 만연한 출세주의 비판 △장학사 및 장학관에 대한 특혜 축소, 외부

감사제도 도입 등 기술적 대안의 제시로 구분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격상 '낮은 차원의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정책실천적 효과'없는 '내용 없는 제도'만 이 남을 것이다. 교육당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대책에 대해 이미 교육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비리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동일시한 결과이다. 교육영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낮은 이해'에 기초한 교육선진화정책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한국의 시장 원리를 교육계에 여과 없이 활성화 시켰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결여는 교육계의 도덕적 민감성을 마비시키고 반교육적 교육행정에 대한 자기반성능력을 퇴화시키고 말았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아래서, 비도덕적인 교육행정, 교육 비리를 통한 사익의 확대에 대한 관대한 시선, 교육 비리의 일상화는 당연한 결과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이

데올로기의 교리비리를 낳는다. 교육선진화 정책의 이념적 좌표는 경쟁과 자율인데 자율은 적고 경쟁만이 난무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율도 경쟁을 위한 자율만이 있다. 이는 교육당국자, 중간교육행정자, 교장, 일선 교사, 학생들에게 조급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고 '교육비리'와 근진성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교육 비리의 척결(剷拔)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장학사 특혜 폐지, 교장임용 공모 및 심사제 배제, 교육 전문직 선발 시 외부 인사 참여 등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통한 교육 비리의 온상(溫床)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교육 비리는 영원하다. 도덕적 사회란 다른 아닌 사회정의가 구현된 사회이다. 교육비리가 없는 교육정의가 구현은 사회정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전후 독일의 교육현실을 '절반의 교육'이라고 비판한 아도르노는 교육이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의 부정의성에서 찾았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사설

니트족 43만 명,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청년세대의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이 최근 5년간 30%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의욕이 없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채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사는 니트족 청년층(15~34세)의 수는 지난해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니트족 인구는 니트족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2008년 64만 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국은 2004년 33만 명에서 5년 새 33%나 증가했다. 니트족의 급증(急増) 원인에는 근로의욕을 상실한 실업자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의 미흡한 실업문제 대책이 더 큰 원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들은 대부분 한정적이고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實例)로 올해 초 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동반 성장 정책을 발표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대출 미취업자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은 대부분 한정적이고 단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오는 발언을 통해 개인의 구직에 대한 의지와 기업들의 자체적인 일자리 증설을 촉구하는 등 취업 문제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부문 활성화와 노동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용 중심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시장 중심적 사고를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시점이다.

아웃사이더, 그들이 아닌 우리가

대학생 3명 중 1명은 학교생활에서 곁들며 혼자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5%가 자신을 '아웃사이더(Outsider)'라고 답했다. 속칭 '야짜'라 불리는 아웃사이더는 대학가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보다 주로 혼자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웃사이더가 된 이유로는 '불필요한 학과 행사가 싫어서'가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자 다니는 것이 편해서(23.1%),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14.3%), ▲학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13.7%), ▲사교성이 부족해서(12.6%), ▲타 학과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6.0%), ▲동아리 등 학과 밖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3.8%) 순이었다. 또한 아웃사이더에 대한 인식도 '공정적'(66.7%)이란 응답이 '부정적'(33.3%)이란 응답의 2배를 넘었다. 비록 일부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자료이지만, 어느 대학이나 아웃사이더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한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대학생활을 보내며 '아웃사이더'임을 만족하며 살아 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학에서 학문에 정진(精進)하는 것 못지않게, 동기·선배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대학을 벗어나서도 '동문(同門)'이란 굳건한 이름으로 남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웃사이더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배척의 눈길로 바라보지 말자. 관심의 눈길을 보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어쩌면 그들도 더 많은 동국인들과 어울릴 기회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메아리

김환기 기자 lan@dongguk.edu

어긋난 모성애(母性愛)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대학교의 한 교수가 '엄마가 되는 것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쥐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 모성애(母性愛)의 힘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 결과, 여성은 아기를 출산해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두뇌의 힘이 강화(強化)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새끼를 출산한 어미 쥐는 출산 전보다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 5배나 빨리 움직이며 공간 지각력도 향상됐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출산을 한 여성의 뇌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발달하고 확장돼 모성애의 힘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中毒)돼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아사(餓死)하게 한 어느 부모의 소식이 보도됐다. 부모는 아기를 홀로 방치(放置)해 둔 채, 하루 12시간까지 피시방

을 출입했다. 아기는 부모가 피시방에 가지 직전이나 다녀온 직후 하루 1번 정도만 분유를 먹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아기는 비쩍 마른 모습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동일한 시각 부모는 여전히 피시방에 있었고, 그들은 현실 속 아기를 대신해 가상 속 사이버 아기를 키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사건 보도 후, 이 비정한 부모에게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內幕)은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바와는 다르다. 부모가 사이버 아기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2.25kg의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게임을 현실 도피의 길로 택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게임 중독으로 부모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아기

를 돌보는 행위가 실제 딸에게 소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대리 만족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아기에게 등한시했던 부모라기보다는, 현실의 애아(愛兒)에게 쏟고 싶었던 모성애가 사이버 아기에게로 어긋나버린 불쌍한 부모다. 최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살해 혹은 방치하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거나,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수법도 여러 가지다. 현실 속의 아기를 방치하는 일인데, 부모로서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싶은 일탈이든, 어떤 형태로든 모성애가 어긋나 있는 사회처럼 보인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부모의 비난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모성애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모성애가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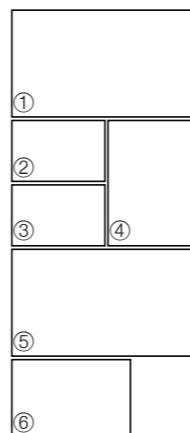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논문 공모전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학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공학적 지식을 다학제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생들의 다학제적인 설계 응용 능력제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캡스톤 디자인(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업을 개편하고 활성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고 결과물(제안서, 논문)을 제출한 모든 팀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들에게는 포상뿐만 아니라 다음 년도의 캡스톤 디자인(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업의 다학제적인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명 :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논문 공모전
2. 참가대상 : 공과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개인 및 팀 (교수는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3. 대회일정
- 결과물 제출기간 : 2010.03.08(월) ~ 03.19(금) 18:00까지
- 신청서 및 결과물 양식 : 공대 각학과 및 공학교육혁신센터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iceed.dongguk.edu)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2260-8840)
- 전시/시상 : 2010.03.19(금)
4. 포상
* 참가 인원과 결과물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1팀 : 학장상, 상금 100만원
- 금상 1팀 : 공학교육혁신센터장상, 상금 50만원
- 은상 2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부과위원장상, 상금 30만원
- 동상 3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부과위원장상, 상금 20만원
- 장려상 5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부과위원장상, 상금 10만원
** 포상 논문은 한국공학교육학회 및 기타 학회 학술대회 발표 예정임
공학교육혁신센터

2010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2010년 2월22일(월) ⇒ 3월12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나. 2010년도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2010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1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 학생서비스팀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3층)
4. 신고 시 지참물 / 관심사항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나.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다. 신고는 예비군 연대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U-drims(학사정보·병무·전입 신고)란에 하시면 되며 반드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승인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함
5.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 2260-3047~8)
* 휴학기간 중 '09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 미필자는 전입 신고 시에 필히 훈련 미필서 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바람.
* 대학 직장 예비군에 미신고시 동원훈련(2박3일) 또는 동미참훈련(36시간~20시간)을 받아야하나 학생예비군으로 신고 시에는 1일(8시간)훈련을 받으면 됨.
* 반드시 신고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은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금주의 식단
월(3/8) 갈비경단(2200)/돈가스(2500)/쇠고기명면볶음밥(2200)/참치전골(2500)
화(3/9) 간종육(2200)/햄박스테이크(3000)/매운낙지볶음밥(2200)/육개장(2500)
수(3/10) 공치양념구이(2500)/치즈돈가스(3000)/데리야끼치킨덮밥(2200)/감자탕(2500)
목(3/11) 비엔나계첩볶음(2200)/치킨가스(2500)/치즈볶음밥(2200)/손만두국(2500)
금(3/12) 돈육콩나물볶음(2200)/돈가스(2500)/뽕볶음밥(2200)/우거지갈비탕(3000)
월(3/8) 미트볼조림(2000)/치킨가스(2500)/잡채덮밥(2200)/라면사리부대찌개(2500)
화(3/9) 햄구이(2000)/돈가스(2500)/치즈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수(3/10) 갈비경단(2200)/새우가스(3000)/쭈삼불고기덮밥(2200)/육개장(2500)
목(3/11) 탕수육(2200)/고구마돈가스(3000)/참치김치볶음밥(2200)/갈비탕(3000)
금(3/12) 두부김치(2200)/치즈돈가스(3000)/해물덮밥(2200)/설렁탕(2500)
월(3/8) 돈삼검두루치기(2200)/치즈돈가스(3000)
화(3/9) 불고기생채비빔밥(2200)/치킨가스(2500)
수(3/10) 해물덮밥(2200)/피자돈가스(3000)
목(3/11) 제육덮밥(2200)/돈가스(2500)
금(3/12) 치킨굴소스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
월(3/8) 뽕볶음밥(2200)/새우가스(3000)
화(3/9) 데리야끼치킨덮밥(2200)/돈육치찌개(2500)
수(3/10) 제육비빔밥(2200)/돈가스(2500)
목(3/11) 양송이덮밥(2200)/해물치즈술밥(3000)
금(3/12) 닭갈비덮밥(2200)/설렁탕(2500)

절망의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① 다친 아이를 치료하는 의료봉사단 ② 진료 접수를 받는 모습 ③ 대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④ 어린이의 다친 머리를 소독해주는 의료봉사단 ⑤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묘장스님 ⑥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아이티 사람들

사진제공 = 불교신문

우리대학 의료원 소속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조 의료봉사단이 아이티 지진참사 현장에 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아이티 뽀넨지역에 진료소를 개설해 약 1,200여명의 아이티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활동을 벌였다. 그들의 따뜻한 5일 간의 아이티 긴급구조 의료 봉사 여정을 살펴보았다.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 공화국은 죽음과 고통(苦痛), 그리고 눈물과 절규로 가득차 있었다. 진흙과 소금, 그리고 마가린을 반죽해 말린 '진흙 과자'가 주식일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이곳에 지난 1월 12일 대규모 진도 7.0 규모의 강력한 지진(地震)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인해 전체 사망자가 약 30만 명이 발생하고, 모든 건물들이 붕괴된 아이티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나선 동국 구성원들이 있다. 그들은 동국대 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간호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조 의료봉사단'이다.

쉽지 않은 여정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조 의료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은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아이티에 파견돼 아이티 사람들의 상처(傷處)를 보듬었다. 가족들에게조차 아이티로 의료봉사를 간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정을 떠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 보다는 의료진으로서의 의무감이 더 컸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과 도미니카공화국을 거쳐 지난 2월 4일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아이티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포르토프랭스' 공항이 폐쇄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이티까지는 육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약 4시간의 육로 이동을 통해 아이티 '뽀넨'지역에 도착한 의료봉사단은 현지 아이티 주민들로 부터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 의료봉사(醫療奉仕)가 이뤄진 '뽀넨' 지역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버스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다른 의료진의 발걸이 닿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은 연고나 민간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위생 상태로 인한 상처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단장인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 스님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崩壞)됐기 때문에 아이티 사람들은 쓰레기가 즐비한 맨 바닥에 나뭇가지 몇 개와 천 조각으로 만든 작은 움막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의술, 절망을 희망으로 주변에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보건소가 존재하지 않는 뽀넨 지역에서 의료 봉사단의 의료 봉사 활동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진 의료 봉사활동 현장에는 하루에 약 200여명이 넘는 아이티 현지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봉사단의 진료(診療) 소식이 이곳저곳에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의료 봉사단을 찾아왔다.

지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수많은 부상자들을 비롯해 의뢰서비스가 보급되지 않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료 봉사단을 찾았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배꼽이 세균감염으로 인해 썩어들어가 아기를 진료소로 데리고 온 젊은 여자를 비롯해 진료소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티 현지주민들로 가득차 있었다.

외과 진료를 담당한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 백영웅 의사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부딪쳐 다리 외상(外傷)을 입은 50대 노인 환자는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피부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며 "시내 병원에서 돌려보낸 이 50대 노인 환자를 5일 동안 돌봐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이티 사람들과의 우정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뽀넨 지역의 학교에서 한국어 배운 아이티 청년들은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이 진료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의료봉사단의 부단장인 동국대 일산병원 마취과 김경옥 교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원주민 언어인 크레올어 총 4단계의 통역을 거쳐야지 의사소통이 됐다"며 "진료 시 통역(通譯)을 도와주었던 아이티 현지 청년들과 많은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더불어 체온계, 청진기 등 의료 장비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뽀넨 지역의 아이티 현지 주민들과 손짓, 발짓으로 서로의 감정(感情)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웃음을 지은 일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자비정신 실천 석가모니는 타인과 기쁨을 같이하고 슬픔도 같이하는 '자비(慈悲)' 정신을 강조했다. 대규모 지진으로 삶의 기반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이티 사람들과 함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조 의료봉사단.

이번 아이티 의료봉사를 통해 진정한 '구호'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또다른 부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비 정신을 실천 하고 온 그들은 절망의 땅 아이티에 작은 희망을 선사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